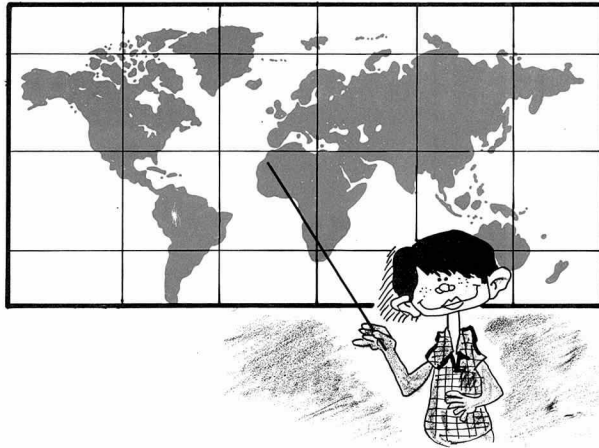


國際氣流

世界 각국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미국

○담배갑크기의 PC/XT

미국의 컴퓨터 회사들이 담배갑 크기의 PC/XT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싱글보드 컴퓨터의 판매를 시작했다. WILD-CARI-88은 그중 하나로 2×4인치의 보드 위에 16비트 CPU와 보조칩 2개의 반도체를 갖고 있으며 완전한 PC/XT 논리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또한 BIOS를 실행하기 위한 EPROM 소켓이 있으며 도스와의 호환성을 얻을 수 있다. 이 제품은 OEM시장을 당면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가격은 1000개에 50불.

한편, 안프로사와 유닉스사가 최근에 기능이 추가된 싱글보드를 발표한 바 있다.

○ 운수성, 항공管制시스템 近代化

운수성은 미국연방항공국(FAA)의 항공관제시스템에 쓰여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바꾸기 위

해 IBM과 총액 36억불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FAA항공관제시스템의 160억불이나 되는 근대화 계획 가운데 가장 큰 부분.

IBM이 앞으로 FAA에 공급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90년 이후에 이용될 예정이다. IBM은 또한 이번의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까지의 잠정적인 내부 컴퓨터로서 이번 계약과는 별도로 1억9천7백만불의 컴퓨터 공급계약을 맺었다.

일본

○ ISDN상용서비스 순조로운 출발

지난 4월 19일부터 세계 최초로 상업서비스를 개시한 ISDN(통합디지털통신서비스망) 서비스가 여러 메이커들로부터 터미널이 저렴한 값으로 발매되고 있다. 터미널의 가격은 20만엔 정도로 低速모뎀내장의 인텔리전트



國際氣流

전화기와 비슷한 가격대이다. 月 기본요금은 사무용이 5천 4백엔, 주택용이 4천 6백엔. 일전전화회선과는 3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지만 기본능력은 3배를 훨씬 능가한다. 여기에서 기본성능이란 이른바 「2B+D」 즉 64Kb/초(B채널) 2회선과 16Kb/초(D채널) 1회선을 합친, 3통신로가 하나의 통신회선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64KB·PCM전화와 64KB·TV전화 그리고 16KB제어데이터전송이 한꺼번에 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64KB회선은 회선교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DDX-P 패킷교환망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통신으로서의 이용효율만 가지고 보더라도 가격이 매우 저렴한 서비스라고 보겠다.

○KDD 상품개발회사 설립

국제전신전화(KDD)사는 동사가 연구, 개발하는 통신·정보처리 관련시스템의 성과를 살려서 시장의 수요에 맞는 각종 상품개발과 그 판매를 하는 상품개발회사 「KDD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통신시스템의 컨설팅이나 통신관련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한다. 자본금은 1억2000만엔, 전액을 KDD가 출자한다.

○ ISDN활용 FAX망 구축

스미도모생명보험사는 일본전신전화(NTT)의 ISDN(중합디지털통신망)을 이용해서 전국 121개소의 지사를 연결하는 팩시밀리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동사는 네트워크를 올해 말까지 모든 지사에 확대할 예정이다. NTT의 ISDN은 세계 최초로 금년 4월부터 가동한 것으로서 약 20개의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고 점차로 거점수를 늘리고 있다. 스미도모생명보험이 본사와 지사, 1천 8백개 지소의 연결에 사용하는 비용은 약 10억엔. 한편, 이의 이용으로 FAX의 송신속도와 선명도를 높이며 계약변경시의 印鑑조회도 가능하고 수속시간이 아주 짧아진다.

○ 미쓰비시전기 100만원이하 G4팩시밀리

미쓰비시전기사에서 100만원이하의 G4팩시밀리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동사는 현재 DDX 가 입전화망에

대응하는 G4팩시밀리(기종 MELFAS D-10)를 동업계에서는 가장 싼 128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MELFAS D-10은 出力에 感熱기록을 채용하고 있으며, 레이저프린터로부터의 出力품질은 좀 떨어지나 가격이 싼 장점이 있고, 走査선密度도 300×300도트/초까지 내려가고 있다. 다음 기종도 이와 같은 기능에 ISDN에 대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 NTT 専用서비스요금 인하

NTT는 専用서비스 전품목의 요금을 이번달부터 인하할 방침이다. 引下대상은 전용서비스의 모든 품목이며 평균 10% 정도 내릴 전망이다. 이는 '87년 8월 이후 1년만에 또다시 내린 것이다. 또한 고속디지털회선의 서비스메뉴도 확충한다. 현재는 64K~6M비트/초의 7개 품목이나 867K비트/초 이하의 속도에 대해서는 64K비트/초마다 서비스메뉴를 설정한다.

○ NTT 89年版 INS서비스 준비중

NTT는 내년부터 세계 최초의 ISDN 상업서비스인 「INS네트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89년판INS네트서비스」를 발족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INS네트 64서비스가 2B+D(B는 64K비트/초, D는 16K비트/초)의 기본인터페이스를 제공, 2개의 B채널을 回線교환으로 이용하기만 하는 단순한 것인데 비하여 굵은 회선로와 패킷 교환서비스를 더하고 한결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다. 새로운 서비스의 메뉴는 첫째 가입자회선을 광섬유 등을 사용해서 1.5M비트/초와 굵은 傳送路를 제공하는 1차군 인터페이스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B채널, D채널을 사용한 패킷교환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세째는 유저사이의 정보통지등 附加서비스나 고도화관켓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의 기능을 충실히 한 것이다. 한편 DDX-P, 팩시밀리통신망 등 기타의 망과 접속도 되게끔 함으로써 본격적인 ISD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日電 指紋으로 IC카드 인식

일본전기의 C&C정보연구소에서는 指紋을 사용, IC



國際氣流

카드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같은 문양이 있을 수 없는 指紋을 暗號 대신 사용함으로써 카드의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게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IC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지문의 특징을 약 20개 기억시켜 놓은 다음 패턴 入力장치로부터 읽어들이는 지문중에 이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내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징을 기억시키는 데 필요한 메모리 용량은 약 200바이트이기 때문에 IC카드의 기능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초.

○ 凸판인쇄 美日間 畫像傳送

凸판 인쇄사는 美日間을 연결하는 畫像 전송용 디지털 회선망을 구축하고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일본서 디자인한 포스터를 곧장 미국서 인쇄하거나 미일 사이에서 직접 상의를 하면서 인쇄물을 디자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시장에서도 짧은 시간내에 손님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셈이다.

○ ISDN터미널 어댑터 標準化

후지쯔와 히다찌제작소는 ISDN터미널 어댑터의 표준화에 관하여 연합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의 ISDN터미널어댑터는 각사의 제품마다 사양이 달라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가운데서 후지쯔와 히다찌는 양사의 장치에 호환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사의 규격을 국내의 표준으로 삼도록 업계에 작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ISDN관련기기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 NTT 사무용 무선전화기 판매

NTT는 올해안으로 사무실용 무선 전화시스템을 발매한다. 휴대형 전화기로서 빌딩안 어느곳에서나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하는 곳에 따라 「추적전화」의 역할도 한다. 접속장치와 전화기 사이는 무선전파가 50m~70m 전달된다. NTT는 이번 가을에 종래보다 더욱 작고 가벼운 휴대전화기의 발매도 예정하고 있다. 본격적

인 이동전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2KDD ATT와 협정

제2KDD 즉 일본국제통신(ITJ)는 AT&T와 통신회선의 접속에 관한 업무기본협정을 맺기로 합의하였다. 이 결과 일본의 국제통신의 40%를 점유하며 최대의 시장인 미국간의 개업에 실마리가 풀렸다. 경쟁사인 국제디지털통신(IDC)은 AT&T로부터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번 합의로 접속교섭에서 ITJ가 우세하게 되었다.

○ NTT 衛星으로 자동차전화 全國서비스

NTT는 통신위성을 사용한 자동차전화시스템의 전송 실험에 성공, 90년 중반에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위성을 사용한 자동차전화를 이용하면 일본 전국은 물론 가까운 바다에서 항행중인 선박과도 자유롭게 통신이 가능케 된다. NTT는 기술실험 위성 「ETSV」로 실험하였으며 디지털통신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 정보서비스업 20% 成長

통산성의 정보서비스산업의 87년도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산업계의 호경기로 연간 판매고가 처음으로 2조엔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고는 전년에 비하여 20% 증가한 3조3천억엔이고 사업자수는 전년비 32%가 증가한 3천7백개소, 종업원수는 역시 전년비 22% 증가한 24만 1천여명.

유럽

○ 정보프로젝트에 3천5백만 ECU 지출

EC(유럽공동체)위원회는 전자정보서비스분야의 공



國際氣流

동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3천5백만 ECU(유럽화폐단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보조금은 내년 1월부터 주로 實證적 프로젝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 정보시장의 확대가 EC의 통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기 때문. EC의 전자정보서비스시장의 매출규모는 현재 연간 12억 5천만 ECU이나 10년후에는 100억ECU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西獨 정보처리산업 신장세 저조

컴퓨터와 OA기기등 서독의 정보처리산업이 지금까지 계속된 신장세에서 다소 저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OA에서 일본이나 NICS(신흥공업국 지역)에 밀려서 서독의 세계시장에서의 占有比가 낮아지고 있다. 전자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복사기등 OA기구나 케비네트, 화일등의 사무용가구까지 포함한 서독 OA기기의 무역액은 80년에 3억3천 7백만마르크가 入超였는데, 지난해에는 20억3천만 마르크로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 분야의 80년 수입액이 국내시장의 43.2%이던 것이 87년에는 60%로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소련,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소련 과학자 美방문단이 마이크로 인터내셔널사와 워드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취지서는 양자 사이에서의 공동개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하자는 것만이었으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축하회의 석상에서 소련 컴퓨터기술국가위원회의 알렉산더·와센코프장은「현재 소련에는 20만대의 퍼스널컴퓨터가 있는데 1990년까지에 100만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 英셀네트 차세대자동차전화 발주

영국의 셀네트가 미국 모듈라사로부터 次世代 디지털 셀룰라(小지역)전화망의 주문을 받았다. 금액은 1억불로 구라파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전화의 「汎유럽 디지털통신시스템」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이다. 셀네트사로부터의 주문예정은 앞으로 5년간 8억불 투자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 英BT 全社 OA化 계획 발표

영국의 브리티슈 텔레콤(BT)은 10년에 걸쳐서 全社를 OA化하기로 결정했다. BT는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全사업소의 社内유저 6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UNIX의 소프트웨어를 가진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무처리의 속도를 높이며 원가를 절감하기로 하였다. 이에 터미널기기는 「T네트」라 불리는 LAN으로 연결, 또한 공중통신망으로서 먼 곳과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 佛전화교환기 코콤규제 완화

프랑스정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이 지난 9월 15일 이후 전화교환기등의 전기통신분야의 소련, 東歐로 향하는 禁輸조치를 처음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전화교환기로는 프랑스의 알카텔사의 디지털교환기 E10형등이 그 대상이다. 코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서방측의 통신기기 메이커들은 오래전부터 소련과 東歐권을 전화보급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음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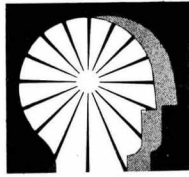
기타

○ 濠洲NEC 위성중계 수주

NEC오스트레일리아사가 91년 호주가 발사할 예정인 통신위성 오서네트의 핵심부분인 中繼機를 주문 받게 될 듯하다. 총액은 약 3천6백만불.

○ 加로저스 미국내 CATV서 철수

CATV등 방송·통신업무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캐나다의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사가 미국내의 CATV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사는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인더스트리츠의 子회사인 KBL케이블과 이 사업을 12억 6,500만불로 매



國際氣流

각하기로 합의하였다.

○ 豪, 국영통신위성사와 HP 합작

호주의 국영통신위성사와 미국의 휴렛팩카드(HP)사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사무용 네트워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合作회사를 설립하였다. 앞으로 국영텔레콤오스트레일리아가 통신위성서비스망을 제공하고 HP가 터미널에서 워크스테이션과 각종 네트워크 제품군을 준비하여 양사가 합동으로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NMS 기준통일 그룹 발족

데이터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NMS)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美ATT, 英BT 등 8개사가 공동으로 「OSI/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포럼」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위의 2개사 외에 유니시스, 암달, 휴렛팩카드 등 미국기업과 캐나다의 노든텔레콤, 텔레콤캐나다, 영국 ICL의 회사인 STC가 참가하였다. 이의 발족으로 OSI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클럽은 서로 다른 기준 사이에서의 통일기준을 마련, 유저의 편의를 도모하며 연간 500만불로 추산되는 NMS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같은 통일기준의 설정으로 지금까지 동일 메이커로부터 도입해오던 컴퓨터나 터미널 시스템을 복수의 메이커 제품이라도 조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 그룹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표준화도 관련하게 될 예정이다. OSI나 X/OPEN에 의한 표준화와 경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IBM, DEC 및 일본 메이커들이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새그룹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지 염려하는 면도 없지 않다.

IBM, OSI제품 미국서도 판매

IBM은 OSI(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의 상위계층제품을 금년중으로 발매할 예정이다. IBM은 이제까지 유럽에서 레이어3의 기능을 갖는 OSNS(Open System Network Support)와 레이어 4.5의 기능을 갖는 OTSS(Open System Transport and Session Service)를

판매하여 왔으나 미국에서는 발매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왔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판매해 오던 제품은 최소한 7개사의 다른 밴더의 동등한 제품과의 상호 접속성이 확인된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에서 판매하게 된 제품은 유럽에서 판매하던 제품에 약간의 개량을 한 것이다. 이같은 개량이 필요하게 된 것은 OSI를 동사의 프로그램간 인터페이스 체계인 SAA(System Application Architecture)에 삽입하기 위한 것이다.

○ DEC 네트워크 EMA 발표

9월12일에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한 DEC사의 「DEC 월드」 전시회에서 DEC사가 새로운 네트워크관리 아키텍처 EMA(Enterprise Management Architecture)를 발표했다. EMA는 동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DNA의 4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관리능력(manageability)을 실현시킨 것이다. EMA는 IBM의 Net View와 같이 기업내의 네트워크를 집중 관리한다.

OSI(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에 준거하고 있다.

○ CATV용 光섬유 공동개발

CATV용 기기의 최대회사인 제너럴 인스트루먼트사와 光화이버 케이블의 최대회사인 코닝 그라스웍스스는 廣帶域의 光화이버통신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光화이버로 CATV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主目的이며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이 될 것이다.

○ 하니웰 高速 光화이버통신 개발

하니웰사가 高速光화이버 데이터통신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스테이션 통신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1초사이에 1백메가바이트의 送信능력이 있을 뿐아니라 OSI(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아키텍처를 채용하고 다양한 네트워크간 통신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항공管制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통신에도 이용될 수 있다. ♣